KOTRA자료 21-252

2022 폴란드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비즈니스 환경 분석 ·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2022 폴란드 진출전략

Contents

I. 시장평가 및 주요이슈 ······ 2
1. 개요 ······ 2
가. 시장전망 ······ 2
나. 주요 경제지표 ······ 2
2. '22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3
가.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허브로 부상 ······ 3
나. 에너지·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확대 ······ 4
다. 유라시아 대륙 물류 중심지로서의 기능 강화 ······ 5
라. 비대면 소비 확산 및 온라인 상거래의 성장 ······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 8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8
가. 정치 환경 ······ 8
나. 경제 환경 ······ 8
다. 산업 환경 ······ 11
라. 정책·규제 환경 ······ 13
2. 시장분석 ······ 15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 15
나. 수출 ······ 16
다. 투자진출 ······ 19
라. 프로젝트·공공조달 ······ 22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의제 ······ 26
가. 교역 ······ 26
나. 투자진출 ······ 27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29
III. 진출전략 ······ 31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31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32
3. 한-폴란드 경협을 통한 진출전략 ······ 36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 39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40
첨부 3. '22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 41
첨부 4. '22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전시회 캘린더 ······ 42
첨부 5.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인수방침 ······ 43

Ⅰ. 시장 평가 및 주요이슈

I 시장 평가 및 주요이슈

1. 개요

가. 시장전망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위축에도 폴란드 경제는 2021년부터 경기회복기로 접어든 것으로 사료되며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 판데믹으로 인한 락다운 시행 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2020년 경제성장률은 -2.7로 역행하였으나 이는 EU 평균 -6.1% 대비 양호하며, 2022년 에도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EU 경제회복기금 1조 8,243억 유로 중 약 12%에 해당하는 2,300억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재건을 위한 뉴딜 프로그램의 발표('21.2.26.) 등으로 교통 인프라, 환경·에너지 분야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EU 탄소배출기준 부합을 위한 그린에너지 정책 시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 원자력 발전, 폐기물처리 등 탄소배출 절감 및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나. 주요 경제지표

주 요 지 표	단 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 구	백만 명	38.0	38.0	38.0	38.0	38.0	38.0	38.0	37.8	37.8
명목 GDP	십억 달러	542.6	477.5	472.3	526.6	587.4	597.2	595.9	655.3	720.4
1인당 명목GDP	달러	14,272	12,564	12,489	13,869	15,468	15,727	15,699	17,319	19,056
실질성장률	%	3.4	4.2	3.1	4.8	5.4	4.7	-2.7	4.8	5.2
실 업 률	%	9	7.5	6.2	4.9	3.9	3.3	3.2	3.5	3.2
소비자물가상승률	%	-0.03	-0.9	-0.6	2.0	1.6	2.3	3.4	4.4	3.2
재정수지(GDP대비)	%	220,067	199,201	203,834	234,443	263,563	266,602	271,049	-	-
총수출	백만 달러	501	424	505	551	612	697	739	-	-
(對韓 수출)	〃	223,572	196,550	199,523	233,891	268,951	265,288	257,168	-	-
총수입	〃	3,384	2,624	2,659	2,859	3,665	4,075	4,672	-	-
(對韓 수입)	〃	-3,505	2,650	4,311	552	-5,388	1,314	13,881	-	-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3.1551	3.7701	3.9431	3.7777	3.6134	3.8395	3.8993	3.8034	-
경 상 수 지	〃	67	49	139	39	23	47	46	-	-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97	150	183	117	176	144	-	-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21.83	75.58	86.60	41.28	31.44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98.18	95.19	110.08	101.08	62.96	-	-

주: 2021년은 추정치, 2022년은 전망치 기입 *2021년도 환율은 1~9월 평균
자료: World Bank, IMF, EC, Global Trade Atlas, NBP, EIU, GUS('2021.10월 기준)

2. '22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4차 산업혁명의 영향과 EU의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산업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 투자유치와 함께 산업 중점 육성
- ▶ EU기금 주요 수혜국, 중동부유럽 다국적 프로젝트 주도국으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이며, 특히 에너지·교통 분야의 투자 가속화 예정
- ▶ 폴란드의 지리적 이점과 EU 회원국으로의 지위, 그리고 교통 인프라 발전의 지속으로 유라시아 대륙 물류 중심지로 역할 확대

가.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허브로 부상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전기차 산업 생태계의 핵심 역할 기대

- 유럽 내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에 대비해 LG화학 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제조공장의 對폴란드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인 자동차 산업 인프라와 함께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허브로 부상
  - 2016년 LG화학 배터리생산 공장 투자를 시작으로 LG화학에 납품하는 한국 협력사들의 폴란드 투자진출도 2017~2018년 본격화되었으며, 전기차 배터리 부품생산기업 뿐만 아니라 배터리 정밀금형, 사출, 프레스 등을 전문으로하는 중소기업들의 투자진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 Daimler AG와 Mercedes-Benz는 2018년부터 폴란드 남서쪽에 위치한 Jawor 단지에 30억 PLN을 투자하여 생산 라인을 제작하였으며, 2020년 10월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작
- 뿐만 아니라 독일, 체코 등 인근 EU 국가 내 대형 전기차 생산시설이 다수 존재 또는 투자가 계획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서플라이체인의 핵심 지역으로서의 역할 및 모빌리티-배터리 업계에 다양한 협업 체계 확산 전망
  - 또한 차량용으로 더 이상 사용되기 어려운 배터리를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터리 재사용', 차량 배터리로부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금속을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 등 전기차 배터리의 부가가치와 친환경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중
  - 이를 통해 미래 전기차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사업의 사업성과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정부차원에서 전기차 산업분야 육성 정책 실시

- 폴 정부는 전기차 구매 장려 정책을 통해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비세를 감면(내연기관 차량에 소비세 및 환경세 부과하는 방식)하고 단발성 소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며,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인센티브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 논의 중

- 폴 정부는 'Initiative for Polish Industry 4.0'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 촉진 및 전기차 등 스마트 산업 육성을 위한 R&D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e-모빌리티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100만대의 전기차 확보를 최종목표로 하고 있음

- 또, 전기 이동성 관련 법률을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공무수행차량의 전기차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50%의 차량을 변경할 것, 대중교통의 무공해버스 점유율은 2025년까지 20%, 2028년까지 3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자국 브랜드 전기차 생산 추진, 2024년 본격 시장 진입 목표

- 폴 정부는 2024년 폴란드 전기차 국산 브랜드 IZERA 출시를 목표로 전기차 제조사인 EMP(ElectroMobility Poland)의 전기차 생산공장 건설에 20억 PLN을 포함하여 약 50억 PLN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할 것으로 추산
  - 폴란드 전기차 제조사인 EMP(ElectroMobility Poland)는 2016년에 폴란드 4대 전력회사 PGE Polska Grupa Energetyczna, Energa, Enear, Tauron Polska Energia가 각각 25%의 지분으로 설립하였음
    ⇒ 폴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산업 유치 및 R&D 인프라 확대 전망, LG화학·SK이노베이션·LS전선 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 현지진출 한국 유수 기업과 협력사에 대한 폴 정부의 지원 확대 예상

나. 에너지·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확대

EU기금 및 뉴딜 프로그램

- EU기금 1조8,243억 유로 중 폴란드는 약 7.3%를 배정받아 교통 인프라, 환경·에너지 분야 투자 가속화 전망
  * 폴란드 배정 예산(안) : 1,340억 유로(다년도예산 760억 + 경제회복기금 580억)
  - 폴란드 경제재건을 위한 뉴딜 프로그램(KPO)* 발표 ('21.2.26일)
    * KPO 규모 : 총 580억 유로 (보조금 239억, 대출 341억 유로)
    ** 5대 중점 투자분야 : △그린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145.2억 유로) △철도 등 녹색 운송(73억 유로) △디지털 인프라(49억 유로) △경제위기 대응(47억 유로) △보건 의료(45.4억 유로) 등

에너지/교통 프로젝트

- 폴란드는 중동부유럽 다국적 프로젝트 주도국으로 특히 에너지·교통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
  - EU 탄소배출기준 부합을 위한 그린 에너지 정책 시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 원자력 발전*, 화력발전소 현대화, 폐기물처리 등 탄소배출 절감 대응 협업 기회 확대
    * 폴란드 정부는 '43년까지 원전 총 6기 건설 계획의 원자력프로그램 발표('20.8)
    ** 지난 '20.10월 폴란드-미국 정부간 협약(IGA)체결로 '22년 본계약은 美기술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타사업자(한국, 프랑스)도 아직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
  - EU 기금 활용 공공조달 및 프로젝트 발주 확대 전망, 신공항* 연계 교통 인프라 분야 민관합동 프로젝트 협력 기회 확대 전망
    * 폴란드 정부는 2027년 개항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 공항 뿐 아니라 접근철도와 배후도시 개발이 포함된 동유럽 최대 복합운송 허브를 건설하는 사업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CPK사와 '폴란드 신공항 전략적 자문사업' 계약 체결('21.2월)
  - EU의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산업의 비중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 투자유치와 함께 산업 중점 육성 중
    * LG화학·SK이노베이션·LS전선 등 폴란드 정부의 지원 확대 예상

다. 유라시아 대륙 물류 중심지로서의 기능 강화

유럽과 중국 ·CIS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이점 및 육로· 철도 수송 인프라 발전으로 물류 중심지 기능 강화

- EU회원국으로서 지리적으로 서유럽과 동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폴란드는 유럽 전역 및 역외수출을 위한 원활한 물류 수송에 이점이 많고 특히 서유럽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여 국제 도로운송 수송업이 크게 발달
  - EU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EU의 전체 국제 운송량 중 폴란드 업체 운송이 1위로 전체의 약 24%를 차지하며, 서유럽 국가로의 수출과 폴란드를 통한 인접 국가로의 수입이 활발하여 전략적 물류 요충지로 고려됨
  - Amazon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 다수의 물류업체들이 폴란드 내 창고 확대를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로 폴란드를 이용한 물류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
- 폴란드 국가도로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인프라 건설 투자에 EU펀드가 집중 계획되며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및 국도 현대화 등이 활발히 진행, 도로화물 운송량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항공물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철도 운송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폴란드는 시베리아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로 연결되는 유럽의 관문으로 유라시아 철도의 중심지로 발돋움

- 폴란드는 유럽 내 가장 다수의 한국기업이 투자진출한 국가이며, 다수의 제조공장이 위치한 핵심 지역이라는 점을 미루어볼 때 우리기업에 대한 물류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라. 비대면 소비 확산 및 온라인 상거래의 성장

판데믹 기간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과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 시행

- 2020년 3월 국가 전염병 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봉쇄 및 여러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락다운이 시행되며 대면 거래가 감소하고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소비 증가
- 2018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 일요일 오프라인 상거래 금지법에 따라 일부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일요일에 소규모 상점을 제외하고 상거래가 전면 금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모바일 전자상거래를 선호하는 소비자 증가

배송 산업의 발달 및 다양한 결제옵션 도입

- 스마트 배송시스템의 도입으로 빠른 배송과 실시간 트래킹이 가능해졌고 소비자는 소포 보관소 시스템을 통해 7일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제품을 수령하고 손쉽게 반환까지 할 수 있어 온라인 거래의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우 제품 구매시 다양한 결제옵션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가 주문배송 후 최대 30일간 결제를 보류해주는 후불결제 및 결제연기 옵션과 3개월 내 3회 분할결제 혹은 5, 10, 20개월내 5회 분할결제 등 선택 가능
- 그 외에도 인터넷 사용률의 증가, ICT 기술의 발달 등으로 온라인 상거래가 성장하였으며 온라인 유통채널은 향후 5년간 양호한 성장 전망

  * 전자상거래 판매규모: '17년 70억PLN → '18년 77억PLN → '19년 82억PLN → '20년 87억PLN(추정)

전자상거래 성장에 따른 한류소비재 진출기회 확대

- 온라인 주요 거래품목의 특성상 소비재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K푸드, K뷰티 등 한류소비재의 현지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Ⅱ. 비즈니스 환경분석

Ⅱ 비즈니스 환경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보수성향의 우파 민족주의 정책을 추진하며 EU와 정치외교적 마찰이 지속
- EU기금 주요 수혜국으로 동 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 강한 제조산업 기반으로 기계, 자동차, 항공 등의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최근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맞춰 전기차 산업 육성, 산업의 자동화를 도모
- 폴란드 정부는 책임개발전략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 중

가. 정치 환경

민족주의 성향 우파정당 집권으로 EU와 정치외교적 마찰 지속

- 폴란드 현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국가 발전을 위해 기존 낡은 제도의 개혁이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며 각종 개혁을 추진
- 2021년 의회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판사 임용제도와 관련해 폴란드 헌재는 EU 조약보다 폴란드 헌법이 우위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립각을 세웠으며, EU는 폴란드가 법치주의를 따르지 않고 권위주의식 정치를 한다며 공방
- 특히 EU는 폴란드 정부가 성소수자 및 여성 인권 탄압, 사법권 독립 침해, 표현의 자유 박해 등을 비판하였으며 2020년 특별정상회의에서 폴란드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예산 배정 조건으로 법치주의 존중을 내세운 바 있음

나. 경제 환경

2004년 EU 가입 이후 2019년까지 플러스 성장 지속

-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이후 역내 수출 증가, 꾸준한 외국인 투자 유입, 건설 및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한 내수경기 활성화 등으로 2019년까지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을 이어왔음
-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EU 회원국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에도 EU 회원국 평균 경제성장률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성장을 달성함

- 2019년 경제성장률은 가계소비 증가에 힘입은 내수경기 호황, 실업률 감소, 정부지출 확대 등에 힘입어 4.15%를 기록

2020년 코로나 19여파로 마이너스 2% 이상대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 점차 경기회복기로 진입하여 4%대 성장할 것으로 추정

-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국경봉쇄, 경제활동 규제 등 제한조치가 장기화되면서 2020년 GDP 경제성장률은 −2.7로 역행하였으나 정부의 기업지원금 정책 등의 실시로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EU 평균 −6.1%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폴란드의 경제는 내수소비 증가 등으로 빠르게 회복하여 2022년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

〈주요 기관별 폴란드 GDP 성장률 전망〉

기관명	2021년(e)	2022년(f)
IMF	4.6%	5.2%
PKO 은행	5.1%	4.7%
OECD	3.7%	4.7%
European Commission	4.8%	5.2%
폴란드 국립 경제연구소	4.4%	4.8%
폴란드 중앙은행 (NBP)	5.0%	5.4%
평균	4.6%	5%

자료: 각 기관 자료 종합 ('21.7월 기준)

〈 EU 주요국 GDP 성장률 및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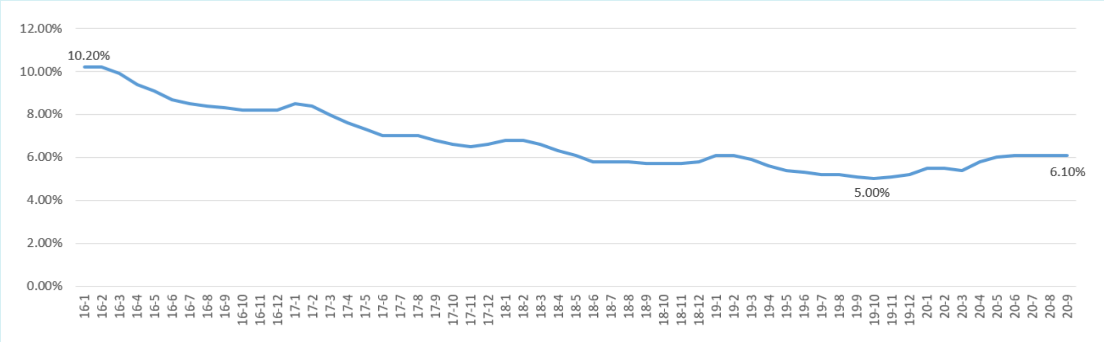
구분	국가	2019년	2020년	2021년(e)	2022년(f)
주요 EU 회원국 (유로화 사용)	독일	0.6%	-4.8%	3.6%	4.6%
	프랑스	1.5%	-7.9%	6.0%	4.2%
	이탈리아	0.3%	-8.9%	5.0%	4.2%
	스페인	2.0%	-10.8%	6.2%	6.3%
	그리스	1.9%	-8.2%	4.3%	6.0%
	슬로바키아	2.4%	-4.8%	4.9%	5.3%
주요 EU 회원국 (자국통화 사용)	체코	2.6%	-5.6%	3.9%	4.5%
	헝가리	4.9%	-5.0%	6.3%	5.0%
	폴란드	4.1%	-2.7%	4.8%	5.2%
유로화 사용 19개국 평균		1.3%	-6.5%	4.8%	4.5%
영국 제외, EU 회원 27개국 평균		1.5%	-6.0%	4.8%	4.5%

자료: European Commission, IMF ('21.9월 기준)

실업률

- 폴란드는 최근 몇 년간 경기호황에 따른 산업 생산량 증가로 국내 노동환경이 지속 개선되었으며, 산업 전반적으로 인력공급이 부족으로 임금상승 압력과 함께 고용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생산량 및 업무량이 큰 폭으로 감소해 기업들의 인력 축소 현상이 일부 나타났으나, 정부의 노동자 급여 지원 정책으로 실업률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음

〈폴란드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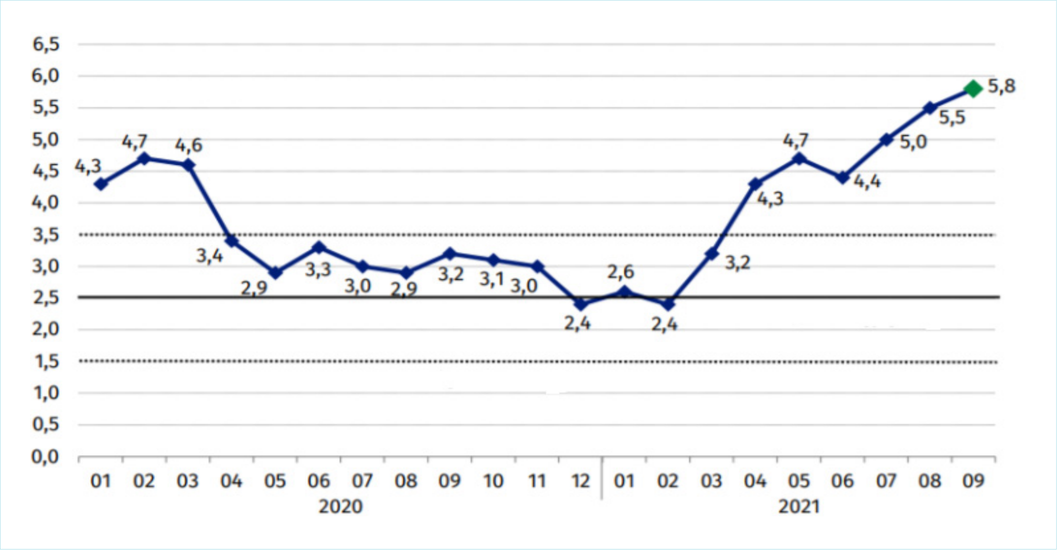
자료: 폴란드 중앙통계청 GUS 및 노동부 ('21.9월 기준)

- '21년 2분기 폴란드 경제성장률이 10.9%를 기록하면서 경제 봉쇄 이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조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고용시장도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물가상승률

-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안정과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4% 이상의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4월부터는 3%대로 다소 안정적인 수준으로 안착하여 '20년 하반기 평균 물가상승률은 약 2.9%에 달함
- 2021년 9월 기준 폴란드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플레이션은 5.8%으로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폴란드 국립경제연구소(PIE)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인상, 수도 요금, 쓰레기 수거 인상 등을 주요인으로 분석하였으며 또한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급등 등 팬데믹과 관련된 일시적인 요인이 물가 급등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폴란드 인플레이션은 2021년 말경 약 6%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 상승 추세는 2022년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폴란드 소비자 물가상승률 추이(단위:%)〉



자료: 폴란드 중앙통계청 GUS ('21.9월 기준)

다. 산업 환경

폴란드 산업구조

- CIA the World Factbook 2020년 10월 확인 자료에 따르면 폴란드 GDP는 농업이 약 2%, 제조업이 약 41%, 서비스업이 약 57%를 차지

- 첨단 산업 및 서비스업 육성으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변화 중
  - 기존에 강점을 보유한 자동차, IT, 기계 등 제조부문에 4차산업 시스템 도입 및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 주도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서비스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확대 추세임

폴란드 주요 산업동향

- 소비재
  - 소득수준 향상으로 건강, 미용, 여가생활 등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유기농식품이나 화장품, 미용, 레저 관련 소비재 시장 급성장
  - 초기 형성단계에 있는 폴란드 소비재 시장은 기저효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 내 6번째로 많은 인구 보유 시장으로 잠재력이 큼
  - 특히, 일요일 오프라인 상거래 금지법, 인터넷·모바일 환경 발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로 전자상거래 이용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음

● 기계

- 폴란드에는 약 1,000개 이상의 기계 제조업체가 운영 중이고, 산업용 기계 중 단순 공작기계 생산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산업용 정밀기계의 경우 외국산 수입에 의존하는 현황
- 폴란드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공작기계는 금속산업, 자동차, 건설, 광산, 조선, 항공, 철도산업 등의 수요처에 공급되고 있으며, 기계 주문량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수입을 지속 확대하는 중
- 폴란드 정부는 4차 산업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U펀드를 활용해 기존 기계 제조공정에 사이버 물리시스템, 로보틱스, 3D 프린팅 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도입을 추진 중

● 비즈니스 서비스

- 과거 폴란드는 유럽시장으로의 지리적 접근성과 낮은 임금 등의 장점으로 단순 노동력이 많이 요구되는 제조업 국가로 인식되었으나, EU가입 이후 정부차원에서 고학력, 고임금 인력 채용을 대거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을 적극 육성함
- 폴란드는 기업의 인사, 회계, IT, R&D 등 분야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BPO)과 기업 내 여러 사업 부서를 하나의 특정 조직에 위탁하는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s Center, SSC) 산업이 크게 발전, 유럽의 비즈니스 서비스 아웃소싱 허브로 도약
- 폴란드 내 삼성전자, 구글, 아마존, MS, IBM 등의 글로벌 IT기업들이 R&D센터를 운영 중이고, 특히 서유럽보다 임금이 저렴한 고학력의 전문 인력이 풍부하다는 장점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

【참고】 한국과의 교류가 유망한 해당국 대표산업

국가	2020년 수입액 기준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폴란드	전자기계 (85)	기계 (84)	무기화합물 (28)	자동차 (87)	플라스틱 (39)	철, 철강 (72)	철강제품 (73)	광학의료기기 (90)	구리 (74)	알루미늄 (76)

자료: Global Trade Atlas ('21.6월 기준)

【참고】 대표산업별 글로벌기업 리스트

	국가	기업명	주재국 진출형태	'21년, '22년 주요 동향
자동차	폴란드	Toyota	생산, 판매	전기차 개발에 주력하기 위한 생산공장 재투자
전자기계	폴란드	LG전자, LG화학	생산, 판매	LG화학 공장 가동률 상승, 생산라인 확대 추진
철강제품	폴란드	ArcelorMittal	생산, 판매	크라쿠프 공장 영구 폐쇄, 생산규모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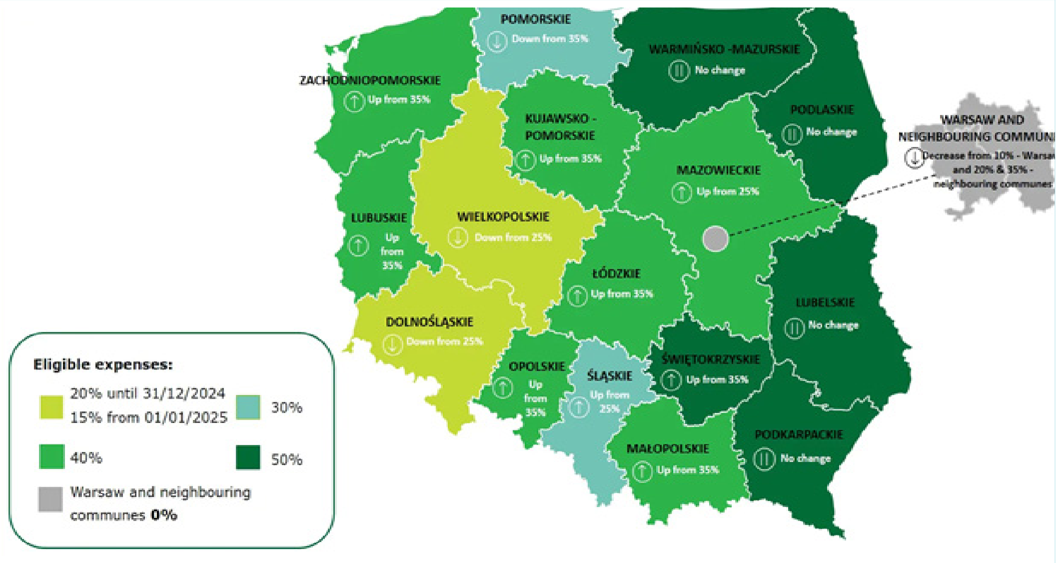
라. 정책·규제 환경

투자진출 인센티브 규정 개정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투자지원 정책 관련 지침 발표에 따라 2022년부터 폴란드 경제특구 투자지원금 및 중앙정부 현금지원 규정 시행 예정

- 폴란드는 투자진출 기업에 지역별 투자지원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형태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동 인센티브의 지원율 및 지원기간 변경
- 9개 경제특구 지역의 지원율은 현행보다 5~15%정도 증가하는 반면 돌느로실롱스크크(Dolnośląsk)주, 비엘코폴스카(Wielkopolska)주, 포모스카(Pomorska)주의 경우 5~10% 감소
- 돌느로실롱스크주, 비엘코폴스카주 등은 10년, 폴란드 중·서북부 지역의 경우 12년, 남동부 지역은 15년간 인센티브 수혜 가능

2022년 변경되는 폴란드 주별 경제 특구 지원율



자료: Deloitte 폴란드

● 현행 규정과 같이 전국 실업률 대비 투자지역이 속한 군의 평균실업률 및 투자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최소 투자금액이 차등화되며, 폴란드 정부에서 규정하는 질적 조건*의 충족이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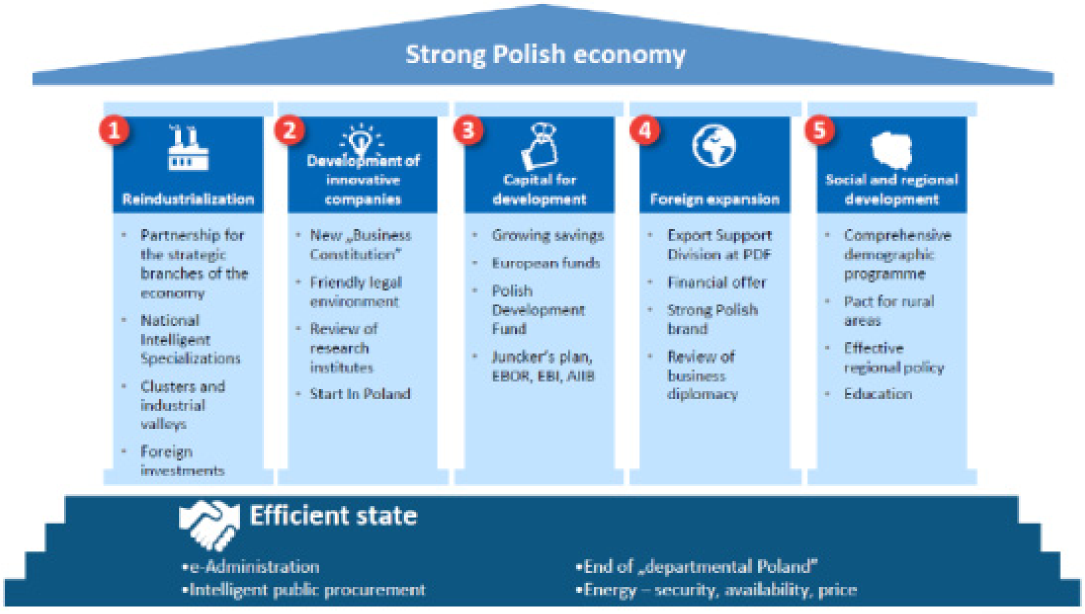
* 질적 투자조건 개정관련 세부사항은 공식 발표되지 않아 추후 모니터링 필요

● 코로나19로 완화된 현금 지원정책의 수혜조건(투자금액, 고용인원수 등)의 연장 또는 개정 관련 사항은 공식발표 되지 않아 추후 모니터링 필요

책임개발전략

- 폴란드 정부는 국가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책임개발전략(Strategy for Responsible Development) 발표
- 책임개발전략은 재산업화, 혁신기업 개발, 개발자본 형성, 해외 확장, 지역사회 발전 등 5가지 세부 계획을 통해 강한 경제를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폴란드 정부는 동 전략으로 해외진출 확대, R&D 분야 지출 확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행정 디지털화 등을 목표

〈폴란드 책임개발전략 세부 계획〉



자료: 폴란드 투자개발부

E-모빌리티 종합발전계획(Electromobility Development Plan, 2017)

- 폴란드 정부는 환경문제에 따른 에너지 사용 변화와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E-모빌리티 분야에 관한 발전 전략 발표
  - 동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50만대의 전기차와 공공시설 내 일반 충전시설 6,000개, 고전력 충전시설 400개 확보 및 2025년까지 전기차 수를 100만대까지 확대할 것과, 폴란드 내 등록되는 전기차 부가가치의 30%를 국내 생산으로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시장분석

- 폴란드는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유럽과 중국·CIS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 탄탄한 경제 펀더멘털 보유와 함께 EU기금의 주요 수혜국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많은 프로젝트 발주 및 정부 투자지원 정책 지속
- 폴란드 교역은 EU회원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나 최근 한국, 중국, 베트남 등 비EU국과의 교역도 늘어나는 추세임
- 기존의 14곳이었던 경제특구를 국가 전체로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의 투자는 1990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 중

가.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2021년 경제회복기 진입

- 폴란드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3,800만 명으로 EU 국가 중에서 여섯 번째, 중동부 유럽에서는 가장 큰 규모임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폴란드 경제성장률은 1.6%를 기록해 EU에서 유일한 플러스 성장을 하였으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속에서도 5.0%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2020년 경제성장률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7%까지 하락하였으나 27개 EU 회원국 평균과 비교시 하락폭은 크지않은 편이며, 2021년 2분기 판데믹 기간 억제되었던 내수 소비의 급증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판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치인 10.9%를 기록

유럽-CIS-중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유라시아 중심의 물류 센터 역할

- 폴란드는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러시아 등 유럽과 CIS의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서유럽으로 활발하게 수출됨과 동시에, 서유럽에서 수입된 완제품 및 원부자재가 폴란드를 통해 인접 국가들로 재수출되고 있어 산업재 생산과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
- 폴란드는 시베리아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로 연결되는 유럽의 관문이면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본부가 있는 유라시아 철도의 중심지로 역할

나. 수출

폴란드 수출입동향

- 전통적으로 EU 역내 무역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최근 몇 년간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특히 2020년 수출 규모의 경우 중국은 전년 대비 14.7%, 한국은 6% 증가하였으며, 수입의 경우 같은 기간 중국 15.9%, 한국 14.6%, 일본 2% 증가
- 특히, 독일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상당히 큰 편으로 2021년 1~6월 기준으로 전체 교역 규모에서 수출 28.72%, 수입 27.01%의 비중을 차지
- 2021년 1~6월 총 수출입 규모는 수출 1,657억 달러, 수입 1,613억 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약 36.34%, 38.49% 증가
- 2021년 상반기 수출입 규모의 큰 증가율은 2020년 코로나19로 약간 주춤했던 경기에 대한 반등 현상으로 2021년 전체 수출입도 전년 대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22년에도 수출입 규모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팬데믹으로 인한 물류애로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폴란드의 국가별 수출 동향〉

순위	국가	수출액(백만 달러)			비중 ('21.1~6월)
		2019년	2020년	2021년 1~6월	
	전체	266,602	271,049	165,646	100%
1	독일	73,928	78,355	47,572	28.72%
2	프랑스	15,554	15,132	9,803	5.92%
3	체코	16,324	15,793	9,790	5.91%
4	영국	15,944	15,500	8,144	4.92%
5	이태리	12,067	11,732	8,047	4.86%
6	네덜란드	11,681	11,479	6,957	4.20%
7	스웨덴	7,458	7,929	4.652	2.81%
8	러시아	8,312	8,170	4,513	2.72%
9	미국	7,575	7,657	4,333	2.62%
10	스페인	6,757	6,867	4,232	2.56%
19	중국	2,964	3,402	1,852	1.12%
40	대한민국	697	739	511	0.31%
43	일본	750	735	444	0.27%

자료: Global Trade Atlas ('21.10월 기준)

〈폴란드의 국가별 수입 동향〉

순위	국가	수입액(백만 달러)			비중 ('21,1~6월)
		2019년	2020년	2021년 1~6월	
	전체	265,288	256,168	161,329	100%
1	독일	71,538	70,671	43,568	27.01%
2	중국	22,988	26,638	16,393	10.16%
3	네덜란드	14,950	15,717	10,311	6.39%
4	이태리	13,385	12,803	8,512	5.28%
5	러시아	15,919	11,361	7,954	4.93%
6	프랑스	10,693	9,763	6,367	395%
7	벨기에	9,811	9,537	6,338	3.93%
8	체코	10,563	9,830	6,297	3.90%
9	슬로바키아	6,200	6,164	4,049	2.51%
10	스페인	6,243	6,258	3,988	2.47%
15	대한민국	4,075	4,672	3,134	1.93%
20	일본	2,138	2,182	1,322	0.28%

자료: Global Trade Atlas ('21.10월 기준)

폴란드 주요 수출입 품목

- 2021년 1~6월 기준 주요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 품목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 기계류, 철도·차량 부품의 비중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
- 또한 폴란드는 가구산업이 발달하여 전 세계에서는 중국, 독일, 이탈리아, 베트남 등과 함께 많은 수출 판매규모를 보이고 있음

〈폴란드의 주요 수출입 품목〉

순위	'21,1~6월 주요 수출품목			'21,1~6월 주요 수입품목		
	HS코드	금액 (백만 달러)	비중	HS코드	금액 (백만 달러)	비중
전체		165,646	100%		161,329	100%
1	85 : 전자제품	22,191	13.40%	85 : 전자제품	22,008	13.64%
2	84 : 기계류	21,695	13.1%	84 : 기계류	19,804	12.28%
3	87 : 철도·차량 부품	15,981	9.65%	87 : 철도·차량 부품	14,308	8.87%
4	94 : 가구류	8,882	5.00%	39 : 플라스틱류	10,234	6.34%
5	39 : 플라스틱류	8,278	4.99%	27 : 광물성 연료	8,732	5.41%

순위	'21,1~6월 주요 수출품목			'21,1~6월 주요 수입품목		
	HS코드	금액 (백만 달러)	비중	HS코드	금액 (백만 달러)	비중
6	73 : 철강제품	5,296	3.2%	72 : 철강	6,815	4.22%
7	44 : 목재류	3,577	2.16%	30 : 의료용품	5,049	3.13%
8	72 : 철강	3,353	2.02%	73 : 철강제품	3,726	2.31%
9	40 : 고무제품류	3,318	2.00%	90 : 의료·측정기기	3,714	2.30%
10	90 : 의료·측정기기	3,256	1.97%	62 : 의류	3,062	1.90%

자료: Global Trade Atlas ('21.10월 기준)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 등 진입장벽

- 폴란드는 EU 회원국으로 EU에서 정한 수출입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출입이 자유로워 무기류, 폭발물 등 특수 품목을 제외하고 수출입 규제가 없음
- EU와 여타 경제권역의 FTA협정으로 많은 품목군에서 비관세 혜택을 받는 곳이 많으나, 기계, 전기전자, 건축자재, 완구 등에 대한 CE 마크 획득 등 EU 공동의 인증 제도를 통과해야 판매가 가능함

우리기업 수출 성공사례

수출 사례분석

우수한 제품, 시장진출 전략, 지사화 사업으로 시장 개척에 성공

- G사는 김 생산 전문기업으로 유럽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폴란드에서 개최된 식품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였고, 동 전시회에서 바르샤바무역관 직원의 소개로 지사화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G사는 당시 폴란드 내 거래선이 없었고 진출 초기단계였지만, 무역관 전담직원은 G사 제품의 품질과 현지 시장 내 성장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여 지사화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을 시작하였다.
- 당시 폴란드에서는 한국 식품에 대한 인기와 인지도가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제품은 실제 폴란드 시장에 많지 않았으며 현지 로컬업체 또는 중국기업이 생산한 한국 식료품이 주로 유통되고 있었다. 게다가 한국산 식품에 비해 품질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였고, 이에 한국식품에 대한 현지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 G사의 지사화 사업이 시작된 이후, 바르샤바무역관 전담직원은 전시회 참석차 한국에 방문하였고 동시에 G사의 공장 직접 시찰하였다. G사는 여타 김 제조사와 다르게 양식, 마른김 제조, 건조, 가공, 유통 등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렇게 제조된 제품이 높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폴란드 바이어를 대상으로 적극 마케팅을 할 수 있었다.
- 특히 한국 전시회에 참석한 폴란드 바이어 E사와 한국 현지에서 바로 면담을 주선하여 5시간에 걸쳐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무역관 직원은 폴란드 시장에 대한 이해와 G사의 제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E사를 설득하였고, 마침내 현장에서 구매 약속을 이끌어 냈다.

- 이렇게 시작한 폴란드 수출을 통해 G사는 현지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하였고, 동시에 무역관 전담직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폴란드 바이어 K사는 폴란드 내 다수의 레스토랑에 김을 납품하는 최대 규모의 아시아 식품 수입·유통 업체 중 한곳인데, 동 바이어는 중국기업 등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김을 수입하고 있었다. 무역관 전담직원은 K사에 G사의 제품을 소개하였고 K사만을 위한 브랜드를 론칭해 독점계약을 체결하는 등 점차 K사가 취급하는 모든 김은 G사 제품이 되게 하였다.
- 폴란드 도매 시장에서 성공을 바탕으로 G사는 마트 등 현지 소매시장으로도 발을 넓혔다. 폴란드 전국에 체인을 보유한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벤더를 발굴하여 PB상품을 개발하는 등 현지 시장에 대한 확대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 현지 수요를 충족하는 우수한 제품과 지사화 전담직원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G사는 현재에도 지속 폴란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G사는 현재 판매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생산공장도 투자하여 유럽 전역에 진출하고자 도모하고 있다.

〈유럽지역 무역관이 선정한 '22년 글로벌기업의 협력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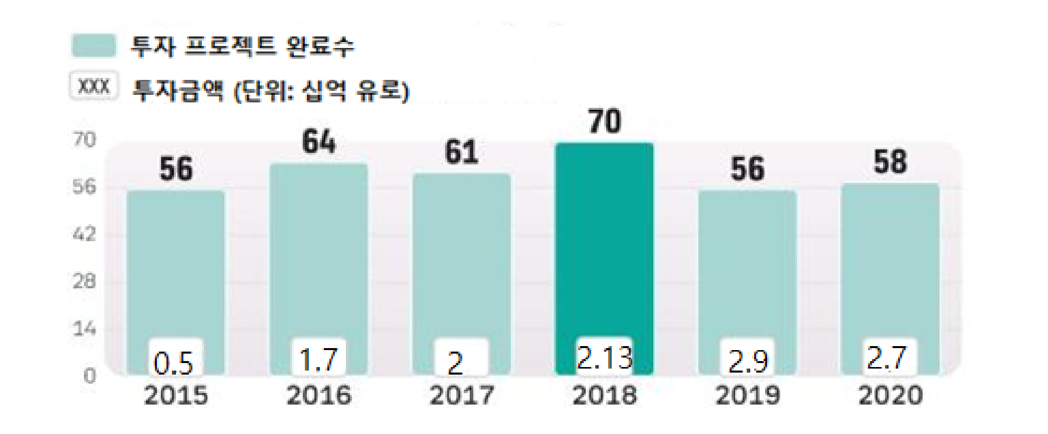
기업명	2022년 동향	사업수요	한국기업이 갖춰야 할 조건
PKN Orlen (폴란드)	• PKN 석유 플랜트 확장공사 프로젝트 EPC 사업 (석유화학 단지 내에서 생산된 나프타를 해해 에틸렌을 연간 74만톤 규모로 생산하는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	EPC(설계·조달·시공)사업	• 기본설계 기술력 및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경험

다. 투자진출

폴란드 투자진출동향

- 폴란드는 2004년 EU 가입 이후 동서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안정적인 경제 상황,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우호적인 투자 환경으로 인해 중동부 유럽 최대 외국인 투자처로 자리 잡음
-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의 폴란드 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2016년부터는 LG화학의 브로츠와프 배터리 공장 투자 등에 힘입어 한국 또한 폴란드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폴란드 투자·무역청(PAIH)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해 총 200여개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총 85억 유로)가 진행되었으며 이중 총 27억 유로 상당의 58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완료됨

〈폴란드 투자·무역청 직접투자 현황〉



자료: 폴란드 투자·무역청, Rzeczpospolita 일간지('21.9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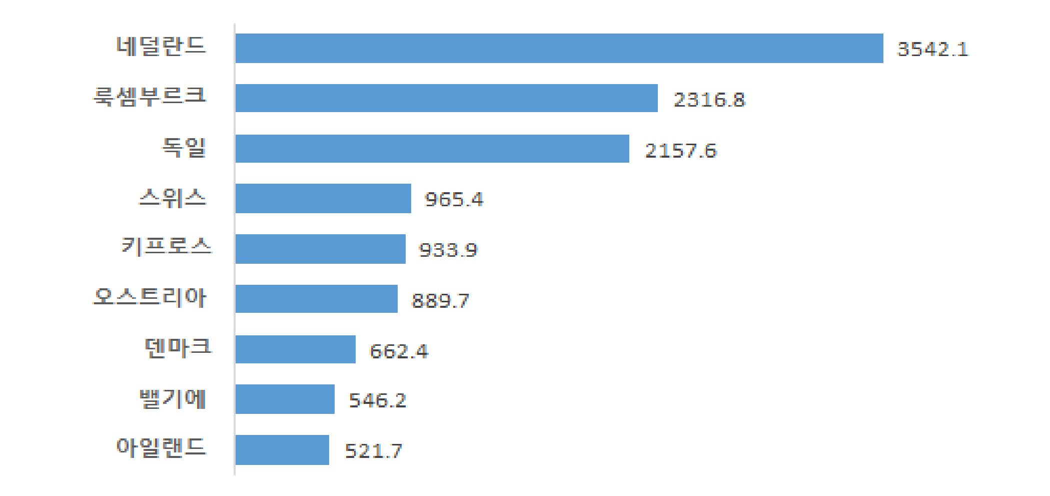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주요 업종별로는 비즈니스 아웃소싱서비스(44개), 전기차 배터리(18개), 자동차 및 부품(15), R&D(15개)순으로 투자가 성사됨

주요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폴란드에 투자 진출하는 국가는 주로 유럽 국가로서 폴란드 국립은행 NBP 2020년 통계 기준으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등의 순으로 직접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2020년 기준 對폴란드 국가별 투자 FDI 금액〉

(단위: 백만 불)



자료: 폴란드 국립은행(NBP) ('21.9월 기준)

투자진출 진입장벽

- 최근 몇 년 동안 폴란드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자국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인구밀도가 낮은 곳을 생산 투자지로 선택할 경우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
- 자동차 및 전기차 배터리 투자진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폴란드 남서쪽 지역은 실업률이 낮아 최소 8천만~1억 즈워티(약 240억~300억원) 이상의 높은 투자비용이 예상되므로 경제특구 투자진출 고려 시 해당 지역에서 요구하는 최소 투자비용과 질적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
-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 투자진출 시 EU 환경규제 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경우 환경평가가 매우 까다로우며, EU 환경법에서 규정하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배출될 경우 투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진출 전에 환경적인 이슈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근로자 중심의 노동법으로 인해 현지 인력관리가 어려움 존재
  - 폴란드 노동법은 노동자 보호에 매우 엄격하고 복잡한 노동법 적용으로 인해 현지 진출기업의 현지인 인사관리에 애로가 많음
  - 이로 인해 근무 태만 등의 사유로 해고시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해고 제한 사유를 악용하여 병가를 내거나 해고 통지서 서명을 거부하는 등 외국 기업의 현지 인력관리에 어려움 존재

우리기업 투자진출 성공사례

투자진출 사례분석

합작투자를 통한 유럽 생산거점 구축

- A사는 식품을 제조하는 발효전문기업으로 일찍이 유럽국가 중 B국에 판매법인을 세워 유럽시장 수출을 확대하고 있었다. 폴란드에도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마케팅을 펼쳐왔지만, 폴란드 시장은 가격에 민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게다가 식품 특성상 보관기간이 중요한데, 물류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 유럽 내 생산공장 구축을 계획하게 되었다.
- A사는 현지 시장 환경을 조사하고 법인설립 여건 확인을 위해 바르샤바무역관 지사화 사업에 참가하였다. A사는 B국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폴란드에도 유통을 해왔었지만, 폴란드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무역관 전담직원과 함께 제품에 대한 시장분석부터 시작하였다. 먼저 동행 출장을 통해 현지 수입업체를 방문하였고, 제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인식, 생산 및 유통구조 등을 확인하였다. 추후 몇 차례 더 출장 후 시장성장, 투자진출환경, 물류, 발효식품 제조 기술 등 고려했을 때 폴란드가 최적지임을 확인하고 폴란드에 유럽 생산공장 진출을 확정하였다.

- 특히 A사는 현지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고,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작투자(JV)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에 무역관 전담직원은 현지 파트너사 발굴을 시작하였고, 현지 식품제조업체 80곳을 시작으로 A사의 적합 파트너 선정을 위해 분석 및 면담을 시행하여 점차 후보군을 좁혀왔다. 뿐만 아니라 동행 출장을 통해 현지 물류회사, 채소도매상, 농장, 설비업체, 농산물시장, 식품 대형 유통업체, 식품 제조업체를 차례로 방문하여 현지 생산을 위한 밸류체인 최적화 방안을 조사하였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지 출장이 여의치 않았지만, A사는 무역관 전담직원을 통해 현지 잠재 파트너사와 화상회의를 하였다. 동 기간 중 후보 파트너사를 3곳으로까지 줄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 2021년 9월 출장을 시행하고 최종 파트너사를 선정하였다.
- A사는 폴란드 생산공장 자진출을 통해 폴란드 시장 뿐 아니라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전역의 시장 확대 사업 비전 전략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라. 프로젝트·공공조달

〈유럽지역 무역관이 선정한 ’22년 발주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명	발주처명	발주규모	프로젝트단계	프로젝트일정
폴란드 (예시)	바르샤바市 대중교통청 지능형 교통시스템	ZTM	50백만불	세부계획 수립 중	’22년 상반기 발주 예정
폴란드 (예시)	토룬市 ITS 프로젝트	토룬市	26백만불	세부계획 수립 중	’22년 하반기 발주 예정

폴란드 공공조달·프로젝트 시장동향

- 2020년 기준 폴란드 내 입찰공고건 수는 총 284,051건으로 2019년 286,671건 대비 하락하였으며, 전체 조달 규모 또한 총 183억 유로 규모로 전년 358억 유로대비 약 175억 유로 하락함
- 2020년 주요 조달분야는 건축·건설이 약 38억 유로 규모로 전체 중 약 21%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기기 약 17% 등이 많은 규모를 차지

〈2020년 폴란드의 CPV별 조달 규모〉

순위	CPV (Common Procurement Vocabulary)	금액 (백만 유로)	입찰공고수 (건)
전체		18,320	236,917
1	45 : 건축·건설	3,859	75,183
2	33 : 의료기기	3,163	25,476
3	90 : 환경처리 서비스	2,551	15,961
4	09 : 에너지, 석유제품	1,679	8,658
5	77 : 농업·산림·화훼·양봉 서비스	867	4,084
6	34 : 운송장비 및 부품	672	7,434
7	50 : 유지보수 서비스	574	6,502
8	66 : 금융·보험 서비스	496	4,942
9	64 : 우편·통신 서비스	416	1,046
10	79 : 비즈니스 서비스(법률, 마케팅, 컨설팅 등)	389	5,395

자료: Opentender Poland (’21.10월 기준)

주요 공공조달·프로젝트 추진 동향

- 2021년부터는 2021-2027 EU기금이 배정되고, 코로나19 대응 EU회복기금도 계획되어 있어 향후 다양한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임
  - EU기금 1조8,243억 유로 중 폴란드는 약 7.3%를 배정받아 교통 인프라, 환경·에너지 분야 투자 가속화 전망
    * 폴란드 배정 예산(안) : 1,340억 유로(다년도예산 760억 + 경제회복기금 580억)
  - 폴란드 경제개건을 위한 뉴딜 프로그램(KPO)* 발표 (’21.2.26일)
    * KPO 규모 : 총 580억 유로 (보조금 239억, 대출 341억 유로)
    ** 5대 중점 투자분야 : △그린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145.2억 유로) △철도 등 녹색 운송(73억 유로) △디지털 인프라(49억 유로) △경제위기 대응(47억 유로) △보건 의료(45.4억 유로) 등

- 또한 발트해-아드리아해-흑해 사이 위치한 중동부유럽 12개 EU회원국이 3개 바다 이니셔티브(3SI) 정상회의를 통해 역내 공동 추진 중인 운송,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구체화 하고 있음

- EU 탄소배출기준 부합을 위한 그린 에너지 정책 시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열), 원자력 발전*, 화력발전소 현대화, 폐기물처리 등 탄소배출 절감 대응 협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폴란드 정부는 ’43년까지 원전 총 6기 건설 계획의 원자력프로그램 발표(’20.8)
  ** 지난 ’20.10월 폴란드-미국 정부간 협약(IGA)체결로 ’22년 본계약은 美기술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타사업자(한국, 프랑스)도 아직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

- 폴란드 내부적으로는 중동부유럽의 교통 중심지 역할을 위해 중앙교통허브(CPK)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개항 예정인 신규 공항 건설과 함께 공항을 중심으로 고속철, 고속도로 연결 사업을 추진 중임
  * 폴란드 정부는 2027년 개항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 중. 공항 뿐 아니라 접근철도와 배후도시 개발이 포함된 동유럽 최대 복합운송 허브를 건설하는 사업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CPK사와 '폴란드 신공항 전략적 자문사업' 계약 체결('21.2월)
- EU의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산업의 비중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배터리 분야 투자유치와 함께 산업 중점 육성 중
  * LG화학·SK이노베이션·LS전선 등 폴란드 정부의 지원 확대 예상

외국기업의 공공조달·프로젝트 수주 동향

- 외국기업의 진출은 주로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기때문에, 2016년 공공조달법 개정 및 공공부문 투자 세부 활용계획 발표 전에는 대형 프로젝트들의 발주가 주춤하면서 진출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17년 하반기부터 다시 외국기업의 진출이 회복세를 보임
  * 폴란드 조달청에 따르면, 2018년 해외기업 전체 수주액은 2017년 대비 122% 상승
- 기존에는 입찰을 수주했던 외국기업 중 독일기업의 비중*이 비교적 컸던 반면, 공공조달법 개정 이후 가격 이외 평가 항목의 가중치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에게 수주의 기회가 확대된 경향을 보임
  * 2014년 독일 수주액 비중 31%이었으나, 2018년부터 15% 미만으로 줄어듦

공공조달·프로젝트 시장 진입장벽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은 폴란드어로 제출되어야 하며, 입찰의 요건들은 보통 영어 이외의 기타 외국어로 공시되지 않음
- 위임장에 대한 특이 요건들, 불필요한 구비 문서(예: 형사범죄 기록 등) 등에 대한 준비 필요
-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컨소시엄의 구성 변화를 불허하며 구성원 중 하나가 부도나 혹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전체 컨소시엄에 영향을 미침
- 모든 문서는 입찰 응찰일과 같은 날짜에 제출 되어야 하고 누락된 문서 보완에 대한 기한이 촉박하며, 이의 신청 제기 기한이 짧아 낙찰된 계약자는 이의 제기를 통보 받고 3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해야 함

우리기업 프로젝트 수주 성공사례

프로젝트 수주 사례분석

풍부한 국내외 실적을 바탕으로 유럽시장에서 기술력 인정 이끌어

- P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제철소 건설을 통해 축적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기반으로, 1994년 기업 출범 이래 연평균 14%의 성장을 이뤄낸 글로벌 종합건설회사이다.
- P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을 바탕으로 폴란드 내 발전 플랜트 사업 수주를 위해 프로젝트 발굴에 노력을 기울였고, 2020년 폴란드 바르샤바에 4900억원 규모의 폐기물 소각로 사업을 수주하였다.
- 바르샤바 폐기물 소각로는 폴란드 정부가 수도 바르샤바와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폐기물 소각처리시설로, P사는 2020년 10월 22일에 바르샤바 폐기물 관리공사로부터 폐기물 소각로 EPC 사업의 낙찰을 이뤄냈다.
- P사는 바르샤바 폐기물 소각로를 통해 기계적으로 연료를 공급해 폐기물을 원활히 연소시키는 스토커 방식을 선보일 예정이고, 연간 26.4만 톤을 처리하는 신 소각로 건설과 4만 톤을 처리하는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맡게 되었다.
- 바르샤바무역관은 P사의 수주를 위해 열린무역관 서비스 등 제공으로 P사가 원활히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지 시장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하였다.
- P사는 이번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다시 한 번 자사의 기술력을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향후에도 해외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등 글로벌 모범 기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무역관이 선정한 주요국별 공공조달 유망분야〉

국가	유망분야	비고
폴란드	의료기기	• EU기금 지원 대상, 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위한 관련 제품 교체 추세 지속
	ITS	• 지자체별 교통개발전략을 통해 스마트 솔루션 접목 도시교통 개발 지속
	전력기자재	• 과도한 석탄발전 의존으로 환경문제 부각, 발전소 현대화 등 추진 지속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의제

가. 교역

한-폴 무역협정 현황

- 양국간 교역규모는 '15년 35억불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며 '20년에는 65억불을 초과하여 역대 최고의 교역액을 달성
  - 한국은 양국 교역에서 꾸준히 흑자를 기록중이며 특히 '20년도에는 48억불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의 흑자 발생
- 폴란드는 EU 회원국으로 한국과 EU는 2010년 한-EU FTA를 정식 서명한 이래 2015년 12월부터 수입액 기준 EU는 모든 對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였고, 한국 또한 對EU 수입 97%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함

對폴란드 수출입동향

- 2020년 한국의 對폴란드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한 약 41억 달러 규모이며, 수입액은 총 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12% 증가함
- 한국의 對폴란드 교역은 수입보다 수출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폴란드의 시장경제개방 이후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 2019년 기준 對폴란드 수출 규모는 수입규모에 비해 5배 이상 큼

〈對폴란드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출 (증감률)	3,850 (6.9)	2,807 (-27.1)	2,912 (3.7)	3,116 (7.0)	4,334 (39.1)	5,315 (22.6)	5,639 (6.1)
수입 (증감률)	773 (-0.3)	696 (-9.9)	541 (-22.2)	628 (16.0)	673 (7)	771 (14.5)	834 (8.2)
무역수지	3,077	2,111	2,371	2,488	3,660	4,544	4,805

자료: 무역협회 ('21.9월 기준)

- 한국과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여 전자제품 및 기계류의 교역이 활발하고 동 품목의 거래규모는 전체 중 1~2위를 차지
  - 특히, 201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분야 등 對폴란드 투자진출 기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현지 공장설립 및 생산을 위한 기계류, 부품, 축전지 등 수출이 대폭 증가
- 對폴란드 수입은 전체 규모가 작아 기저효과에 따른 증감률 변동이 크며, 한국 내 폴란드 귀금속 및 도자제품 인기에 따라 동 품목들의 수입규모가 큰 것이 특징

〈對폴란드 주요 수출입 품목〉

순위	2020년 주요 수출품목			2020년 주요 수입품목		
	HS코드	금액 (백만 달러)	비중	HS코드	금액 (백만 달러)	비중
전체		4,672	100%		739	100%
1	85 : 전자제품	1,645	35.22	71 : 진주·귀금속	70	17.85%
2	84 : 기계류	677	14.49	84 : 기계류	59	14.95%
3	28 : 무기화학제품	578	12.37	85 : 전자제품	47	12.06%
4	87 : 철도·차량 부품	346	7.41	90 : 의료·측정기기	27	6.78%
5	39 : 플라스틱류	336	7.19	87 : 철도·차량 부품	26	6.58%
6	72 : 철강	148	3.17	30 : 의료용품	22	5.50%
7	73 : 철강제품	126	2.69	69 : 도자제품	19	4.76%
8	90 : 의료·측정기기	109	2.33	39 : 플라스틱류	12	3.09%
9	74 : 구리류	106	2.26	94 : 가구류·조명기구	11	2.86%
10	76 : 알루미늄류	86	1.85	11 : 제분공업 생산품	7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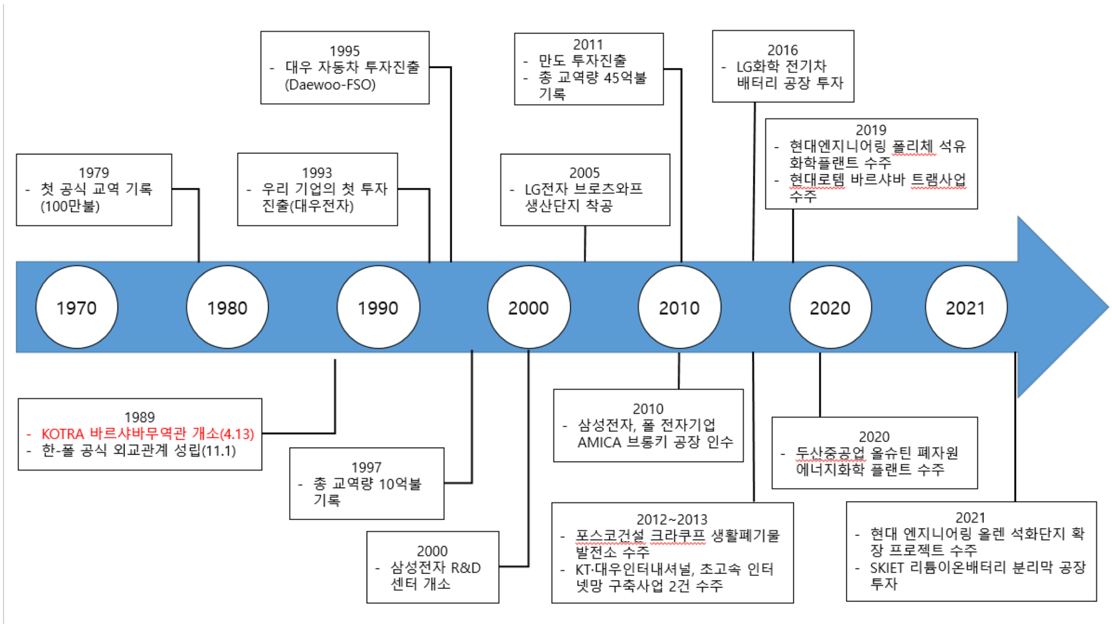
자료: Global Trade Atlas ('21.6월 기준)

나. 투자진출

우리기업 투자진출동향

- 유럽과 CIS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우리기업의 폴란드 투자진출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LG화학 배터리 공장 투자 후 전기차 관련 기업의 진출이 확대 추세
- 1993년 대우전자의 진출로 본격화된 한국의 對폴란드 투자는 1995년 대우자동차의 투자와 함께 여러 협력업체가 진출하면서 급격히 늘기 시작, 2004년 폴란드의 EU 가입 이후로 투자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투자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한국기업의 對 폴란드 투자진출 연표〉



자료: KOTRA 바르샤바무역관 자료 종합

- 2008년부터 체코 및 슬로바키아 소재 현대기아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남부 지방으로 자동차 분야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어졌고, LG 클러스터 형성, 삼성전자의 아미카 공장 인수 등으로 우리기업의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자동차 및 전자제품 생산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6년 LG 화학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 투자에 따른 자동차 부품관련 협력업체의 동반진출과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중동부 유럽 및 CIS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우리기업의 투자 진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
- 최근에는 2019년 5월 현대엔지니어링 폴리체 석유화학플랜트를 수주, 2019년 6월 현대로템 바르샤바 트램사업 수주, 2020년 8월 두산중공업 올슈틴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수주, 2020년 포스코 바르샤바 쓰레기 소각장 건설 수주, 2020년 11월 인천공항공사 폴란드 신공항(CPK, Centralny Port Komunikacyjny) 수주 등 국내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현지 진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 SOC 건설사업, 조달 프로젝트, 방산 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의 폴란드 시장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음
- 2021년 6월 기준 총 투자 누적액은 약 44억 달러로 총 317개 사가 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형태로 폴란드에 투자 진출함

〈對폴란드 직접투자 동향〉

(단위: 개 사, 천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년 6월	누계
신규법인	14	29	36	22	18	317
투자금액	216,150	535,123	1,162,875	739,248	187,820	4,410,66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91년부터 '21년 6월까지 누적기준)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EU 그린딜 정책 대응 그린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공동 개발

- 그동안 한국과 폴란드의 경제 협력은 폴란드 정부가 유수 한국기업을 자국 내 유치하고 한국기업이 폴란드를 유럽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음
-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폴란드의 우수한 생산시설과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고 한국기업의 IT 등 첨단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이 미래 신산업 분야인 그린에너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및 글로벌 리더로의 자리매김 가능
- 이를 위해 폴란드에 기 진출한 LG화학, LS전선, SK이노베이션 등 전기차 배터리 관련 우리 기업들과 폴란드의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이 EU기금을 활용한 공동 기술개발 등 대규모 경제 협력사업 추진 가능
- 또한 해상풍력, 태양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술 세미나, 신기술 개발 및 상용 프로젝트 공동 추진사업 등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

양국간 공동 R&D를 통한 PPP 프로젝트 개발

- 기존 한국과 폴란드 간 경제협력은 상품교역과 더불어 한국 기업의 폴란드 투자진출이 주를 이뤄왔으나,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협력 방안 필요성 대두
- 한국의 첨단기술 및 프리미엄 제품과 폴란드의 정부정책 및 산업 내 수요 그리고 생산능력을 결합한 공동 R&D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발전시설, 송배전시설, 통신 인프라, 교통·물류 인프라, 의료시설 등 분야 신규 프로젝트 개발
- 현재 폴란드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원전 건설, 화력발전소 현대화, 의료시설 현대화, 신공항 건설 등 장기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술이 바탕이 된 청사진 제안, 기술이전 등을 함께 공동 연구개발 확대 논의 가능

Ⅲ. 진출전략

Ⅲ 진출전략

- 언택트 소비문화 선호에 맞춰 유망소비재 발굴, 유통채널 다변화를 통한 공략
- 전기차 산업 육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련 시스템 및 첨단기술 제품에 주력
- 에너지·교통 인프라 분야 기술력과 해외 수주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파트너십 구축 및 프로젝트 수주 기회 확대
- R&D 협력 등을 통한 미래시장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 ❖ 인구 3,800만의 중동부유럽 최대 내수시장 ❖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 강세	❖ 자국기업 보다 외투기업에 의존한 성장 ❖ 일부 국가에 편향된 교역구조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핵심기술 및 경험 부족

기 회 (Opportunity)	위 협 (Threat)
❖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로 내수경기 호조 ❖ 첨단산업 육성 등 발전위주 정부정책 ❖ EU기금 주요 수혜국으로 투자 활성화	❖ 정치·사회적 이슈로 인한 EU와의 갈등 악화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자국기업 중심 육성 ❖ 일부 품목을 제외한 한국산 제품의 낮은 인지도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시장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유망소비재 발굴 ●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제품 중점 마케팅	유망소비재 및 첨단 기술제품 집중 공략
ST 전략 (강점 활용)	● 온라인 유통망 등 對소비자 제품 노출 극대화 ● 현지 파트너 컨소시엄을 통한 한-폴 기업 동반성장	현지기업 협력으로 레퍼런스 축적
WO 전략 (기회 포착)	● 첨단기술 보유 국내기업의 현지진출 확대 ● 기술이전 등 계약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확대	기술협력 기반 프로젝트 수주
WT 전략 (위협 대응)	● 한국-폴란드 각국의 장점을 살려 공동 R&D 컨소시엄 구성 및 제3국 시장진출 도모	국가 중점산업 공동 R&D 모색

2. 주요 이슈별 진출전략

2022년 진출 전략

이슈·산업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소비재	• 시장수요 변화를 주목하여 유망소비재 중심 집중 공략 - 화장품, 전자제품, 생활용품, 식료품 등 현지 수요확대 품목 타깃 - 유통채널 다변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확대, 온라인 마케팅 강화
물류	• EU 시장을 공략하여 폴란드를 전진 물류기지로 활용 - 시베리아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물류 네트워크 확대 - 저렴한 노동력과 창고 임차비용 활용 현지 투자진출

프리미엄 K-Product로 시장 공략	**첨단기술 및 프리미엄 제품 기반 맞춤형 마케팅 추진,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물류기지 활용 비대면 거래 활성화**

2-1. 소비재 수입수요 증가 유망품목 중심으로 공략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대면거래 기피현상 및 배송시스템 발달로 온라인거래 활성화
  * 폴란드 정부는 코로나19로 국가 전염병 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봉쇄 및 여러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락다운을 시행, 이후 점진적으로 완화하였음에도 많은 소비자가 대면거래 기피
  * 무인택배함 서비스 확대 및 편리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온라인 거래 더욱 활성화 중
- 일요일 오프라인 상거래 금지법 및 ICT 기술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선호 경향
  * 일부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일요일에 오프라인 상거래 금지로 쇼핑몰 방문빈도 축소
  * 인터넷 인프라 발전 및 모바일 사용 확대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확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비대면 구매 선호,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소비재 수요 확대
  -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상점 및 쇼핑몰 방문을 꺼려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비대면 구매 선호 확대
  - 온라인 상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류, 미용, 애견용품, 식료품 등과 관련한 프리미엄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

- 생활의 편리와 웰빙을 추구하는 스마트 가전제품 시장 성장
  -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가전제품 수요 증가로 동 시장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20년 스마트 가전 매출 9,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 성장

- 코로나19 상황으로 건강 및 웰빙 관련 제품 수요도 함께 증가
  - 공기조절기(공기청정기, 습도기, 제습기 등 포함)는 2019년 전년 대비 165%, 건조기의 경우 2020년 기준 전년대비 120% 대한국 수입 증가
  - 면역력 증가에 대한 관심, 웰빙제품에 대한 선호 증가로 아시아 등 해외의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 증가
  - 메이크업 및 기초 화장품의 수입이 2017년부터 매년 전년대비 91%, 39%, 23%로 큰 폭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판데믹에도 불구하고 11% 수입 증가, 특히 피부보호 및 노화방지 등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 급증
  - 판데믹으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형 조리용 가전제품 수요 상승, 전기밥솥, 슬로우쿠커, 브레드메이커 등 2020년 판매액 기준 전년대비 각각 5.7%, 7.5%, 11.8% 증가

- ’21.1월부 설탕세 도입으로 2021년 1-8월 탄산 및 에너지음료 가격 상승(음료 100ml에 설탕함량 5g이하인 경우 리터당 0.5 PLN, 5g초과시 g당 0.05 PLN 추가 부과)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폴란드 시장에 판매를 위해 CE 인증이 필수적으로, CE 인증 조기 취득을 통한 시장 진출 선제적 준비 필요
- 건강, 미용, 여가생활 관련 소비재의 품질, 성능, 디자인으로 차별화
  - 우수 디자인 아이디어 상품이나 친환경·기능성 제품임을 강조하고 미국 및 서유럽 제품 대비 합리적 가격을 어필하여 소비자층 공략 필요
  - 기능성 및 색조 화장품, 우수 디자인 생활용품, 육아용품, 김치·김 등 한국식품을 현지 입맛에 맞게 맞춤 제조한 식료품 유망
- 전자·가전제품 및 K-Beauty 화장품 등 프리미엄 한국제품 수출 유망
  - 공기청정기, 정수기를 비롯한 건강증진 관련제품, 생활의 편리함과 웰빙을 추구하는 IoT 기반의 스마트 가전제품, 메이크업 및 기초 화장품, 조리용 가전제품 등 프리미엄 K-product 진출 전망 긍정적

2-2. 물류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지리적으로 서유럽과 동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폴란드는 유럽 전역 및 역외수출을 위한 원활한 물류 수송에 이점이 많고 특히 서유럽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여 국제 도로운송 수송업이 크게 발달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코로나19로 인한 철도 운송 수요 확대
  - 코로나19로 항공물류가 제한적이고 해상운송 또한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철도 운송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철송이 확대되면서 폴란드는 시베리아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로 연결되는 유럽의 관문으로 유라시아 철도의 중심지로 재조명 받고 있음
- 對EU 물류 전진기지로 우수한 환경
  - 저렴한 노동력과 창고 임차비용으로 폴란드 시장뿐만 아니라 타 EU 국가 대상으로 물류기지 진출 가치 지속 확대 중
  -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서유럽으로 활발하게 수출됨과 동시에, 서유럽에서 수입된 완제품 및 원부자재가 폴란드를 통해 인접 국가들로 재수출되고 있어 산업재 생산과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로 역할 지속
  - 특히 폴란드는 EU 국제 운송 국가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고, Amazon 등 글로벌 기업이 창고 확대를 위해 투자를 늘리는 등 EU의 물류산업 생태계 중심으로 부상하는 중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유럽-CIS-중국을 공동 대응하는 폴란드 내 법인·지점 설립을 통한 시장 진출
-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 거점으로 해상 및 항공 운송뿐 아니라 철송이 가능한 품목 중심으로 진출 고려
  - 자동차 부품, 유통기한 제약 적은 소비재, 산업용 공구, 기타 산업재 등 유망

3. 한-폴란드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022년 진출 전략

분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공공 프로젝트	• 우리의 기술력과 프로젝트 개발 경험 활용한 PPP 프로젝트 집중 공략 - 정부·기업·연구소·금융기관 등 협업체계 구축 후 공동 진출 - 분야별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프로젝트 조기 발굴 - 유망 프로젝트 선개발 후 발주처에 역제안
전기차 배터리	• 폴란드 정부 집중 육성 4차산업 중심 시장진출 확대 -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관련 부품 집중 공략 - 개별분야 강점보유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패키지형 진출

동반성장 프로젝트	시장의 수요 대응과 정부의 정책 활용을 통한 한-폴 동반성장 기반 확립

3-1. 공공 프로젝트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폴란드는 EU기금 주요 수혜국으로 EU기금의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 배정되었지만 지방정부의 기술력과 경험 부족으로 프로젝트 발주 미흡
- 폴란드 내 다수의 고속도로, 철도, 항구, 내륙 수로 프로젝트가 EU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폴란드 정부 및 지방정부는 EU기금 활용 프로젝트 시행에 박차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폴란드는 EU기금 주요 수혜국으로 주요 다수의 PPP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
  -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PPP 형태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폴란드 정부 및 발주처는 PPP 형태를 선호함
- 많은 기금이 배정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다수 시행 전망
  - 도로, 철도, 항구 등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와 의료시설 현대화 정책에 따른 의료기자재 및 의료장비 조달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EU 기준 충족을 위한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발주 활발
  - 폴란드 내 석탄 발전이 전체 발전량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쇠하여 효율성 저하, 발전소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활발
  - 에너지원 다변화를 위해 폴란드 최초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폴란드 북부 발트해 인근 지역에 6~9 GW 규모의 원전 건설, 2033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국내기업, 정부 등이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후 유망 프로젝트의 국내외 관계자 참여를 통해 프로젝트 개발 계획 수립
  - 개발된 프로젝트를 폴란드 정부에 역으로 제안하고 프로젝트 구체화 과정을 통해 맞춤형 프로젝트 공급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체와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프로젝트 수주 확대
  - 프로젝트 수주 경험이 있는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 접목 사회 인프라 구축사례 부각, 현지 기업과 R&D기반 협력 및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 마련

3-2. 전기차 배터리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자동차 제조 강국인 폴란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래 첨단 자동차 산업에서도 강국으로 남길 희망
  * 폴란드는 자동차 산업이 국가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주요 자동차 조립생산 공장들과 부품 생산공장들이 폴란드 남부에 밀집돼 유럽 자동차 산업의 핵심 지역으로 위치하고 있음
  * 유럽 내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생산을 위한 주요 기업의 유치를 확대하여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음
- 승용차 및 경량 상용차의 총 생산량 중 98%를 서유럽에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대상국 내 수요 부응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기차분야 기술경쟁력 강화에 주력
  *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의 육성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업 유치를 통해 전기자동차 제조 및 연구개발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중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제조공장의 자동화 및 디지털화,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 그리드 구축 등 산업 전방위적 첨단화 도모
  - 제조 강국인 폴란드는 제조공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에도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 노력 중
-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 투자유치로 유럽 내 전기차 분야 허브로 도약 도모
  -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인 자동차 관련 산업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기차 배터리 등 응용 분야 투자유치 및 중점 육성 전략으로 산업 고도화 도모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전기차 배터리공장 투자진출 효과에 힘입어 한국의 첨단 자동차 부품 등 강점 부각해 집중 공략
  - LG화학, LS전선 등 전기차 배터리 분야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따라 폴란드 내 친 한국기업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 이외 전기자동차 제조를 위한 기타 부품 분야의 성공 가능성도 높음
  - 각 산업의 분야별 강점을 보유한 대중소기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패키지형 상품 및 서비스 제안으로 진출 확대
  - 특히 차량용으로 더 이상 사용되기 어려운 배터리를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터리 재사용', 차량 배터리로부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금속을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 등 전기차 배터리의 부가가치와 친환경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0
화장품	수입액('20/US$백만)	1,026	대한수입액('20/US$백만)	21.9
	선정사유	폴란드인들은 서유럽에 비해 미용에 관심이 많은 편이며, 최근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뷰티산업 크게 성장 및 대한국 수입 증가추세		
	시장동향	폴란드 화장품 시장은 연평균 약 3%의 증가율을 보이며 매년 꾸준히 성장		
	경쟁동향	1990년대부터 L'Oreal, Nivea, AVON 등 다국적 기업이 폴란드 현지에 투자진출해 화장품을 생산하고 내수 및 수출을 하고 있음		
	진출방안	관련 전시회·박람회를 통해 거래선 발굴, 또는 온라인 마켓 벤더나 현지 디스트리뷰터와의 거래를 통해 시장 진출 타진 가능		
품목명 2	HS Code	2106	수입관세율(%)	0
조제식료품	수입액('20/US$백만)	703	대한수입액('20/US$백만)	0.01
	선정사유	폴란드 가계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건강한 식품, 다양한 식품을 찾는 수요 확대 중		
	시장동향	식료품 소비에 대한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성장 전망		
	경쟁동향	EU 역내 주요국 제품 시장점유율 우세, 일본 및 동남아시아 등 제품 확대 추세		
	진출방안	현지 유수 디스트리뷰터를 발굴하여 진입		
품목명 3	HS Code	8708	수입관세율(%)	0
전력기자재	수입액('20/US$백만)	6,995	대한수입액('20/US$백만)	138
	선정사유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자동차 제조 강국으로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따라 관련제품 수입 확대 예상		
	시장동향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 수요 확대 추세		
	경쟁동향	수입 상위 10개국으로 EU국가 및 중국 위치		
	진출방안	현지 법인 설립		
품목명 4	HS Code	8503	수입관세율(%)	0
의료기기	수입액('20/US$백만)	444	대한수입액('20/US$백만)	5.7
	선정사유	폴란드 전력 수요의 증가로 발전용량이 지속 확장될 전망, 발전소 시설 교체 등이 꾸준할 계획		
	시장동향	프로젝트를 통해 꾸준히 조달 확대 중		
	경쟁동향	독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약 30% 규모이며, 중국·인도 등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빠름		
	진출방안	현지 파트너와 컨소시엄 구성		

품목명 5	HS Code	9018	수입관세율(%)	0
의료기기	수입액('20/US$백만)	1,289	대한수입액('20/US$백만)	19.0
	선정사유	EU기금을 활용한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해 신규 의료기기 구입 등 확대		
	시장동향	폴란드 의료기기 시장은 중동부유럽 최대 규모이며, 연평균 성장률 약 5% 기록 전망		
	경쟁동향	80% 이상이 수입제품이며, 주로 글로벌 기업의 제품을 선호함		
	진출방안	현지 벤더를 통한 진입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발전 솔루션	선정사유	EU 환경규제 강화, 에너지원 다변화 등에 따라 전력생산 및 송배전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계획
	시장동향	화력발전소 현대화, 원자력발전소 설립 등 정부 주도 프로젝트 구체화 중, 관련 첨단 솔루션 구축 계획
	경쟁동향	발전 시스템 강국의 對정부 마케팅 시행 중
	진출방안	현지 적격 파트너를 발굴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조사단 파견을 통해 프로젝트 조기 발굴
품목명 2		
지능형 교통체계 (ITS)	선정사유	폴란드 지방정부들은 인프라 확장뿐 아니라 스마트 솔루션을 접목한 교통시스템 개발 추진 중
	시장동향	EU기금 기반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다수 계획
	경쟁동향	주로 자국기업이 관련 프로젝트 수주
	진출방안	폴란드 지자체, 현지 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품목명 1		
비즈니스 아웃소싱 (BPO)	선정사유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서비스 산업이며 현지 수요 지속 증가
	시장동향	1,000여개 이상의 기업이 활동 중이며, 외국기업 70% 이상
	경쟁동향	미국 기업 25%, 영국·독일·프랑스 기업 각각 7% 시장점유율 차지
	진출방안	현지 법인 설립
품목명 2		
물류	선정사유	폴란드 내 생산공장 설립 증가와 지리적 이점에 따라 물류 관련 시장 수요가 높음
	시장동향	2020년 물동량 기준 도로운송 89.2%, 철도운송 8.4%, 해상운송 0.3%
	경쟁동향	폴란드 철도기업 PKP가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 보유
	진출방안	현지 법인 설립 또는 현지 기업 인수합병,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

첨부 3 '22년도 KOTRA 주요사업 (잠정)

연번	구분	사 업 명	시기/장소
1	소비재	• BEAUTY FORUM by Cosmoprof 전시회연계 전략무역사절단	1분기 바르샤바
2	공공 프로젝트	• EU기금 연계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	4분기 바르샤바

1.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 사업

BEAUTY FORUM by Cosmoprof 전시회연계 전략무역사절단

● 추진배경

- 최근 폴란드 경기 호조에 따른 가계 소득 증대 및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에 따라 폴란드 소비자의 소비재 수요 증가
- 특히 한류와 K-beauty, K-food 등의 인지도 확대에 따라 화장품, 식료품 등 한국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 사업개요

- (시기/장소) 2022년 3월(잠정) / 바르샤바
- (규모) 한국 소비재기업 15개사, 폴란드 및 인근국 바이어 30개사
- (내용) 제품 쇼케이스, 1:1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

● 예상성과

- 담 50건, 상담액 2천만불, 성약바이어 5개사

2. 프로젝트 지원 사업

EU기금 연계 프로젝트 세미나

● 추진배경

- 신공항, 고속철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 등 폴란드 내 다수 프로젝트 발주 계획
- EU 경제회복기금, 2021-2027 장기 예산, 3SI 기금 등을 통해 다수의 프로젝트가 구체화되고 실행 단계를 앞두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 전망

● 사업개요
- (시기/장소) 2022년 4분기 / 바르샤바
- (참가) 프로젝트 유관기업, 한-폴 정부 관계자, 폴란드 투자무역청, KIND 등
- (내용) 정부 프로젝트 계획 및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참가 방안 소개

● 예상성과
- 발주처와 PPP 프로젝트 신규 발굴 5건 및 국내기업 프로제트 수주 2건

첨부 4 '22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전시회 캘린더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2년 예산안 발표	2021년 9월 이후	
폴란드 경제특구 투자 개정 법령	2021년 11월 이후	
폴란드 뉴딜정책 일환으로 소득세, 사회보장세 법령 등 발효	2022년 1월 1일	

2022년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바르샤바 세계일류한국상품전 [WARSAW SWEET TECH]	2022.2.13 ~ 2022.2.15	식품, 음료 등 분야 전시회
폴란드 포즈난 의료장비 전시회 [SALMED]	2022.3.23 ~ 2022.3.25	의료·바이오, 제약분야 전시회
바르샤바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Solar Energy Expo]	2022.1.19 ~ 2022.1.20	재생에너지, 친환경산업 및 폐기물관리 전시회

첨부 5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 인수방침

[한국무역보험공사] 폴란드 국별 인수방침

신용장	무신용장
정상인수	정상인수

* 현 국별 인수방침은 '21.12.29일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조사부 국별조사팀(02-399-7177) 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https://www.ksure.or.kr:8443/research/content/contentViewD.do?brdUpperCode=A)

주요 용어 설명

용어	내용
정상인수	별도의 인수제한조치 없이 인수하는 것을 의미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강정민	과장	바르샤바무역관	+48-22-520-6240	jamie55@kotra.or.kr

KOTRA자료 21-252

2022
폴란드 진출전략

발 행 처 KOTRA
발 행 인 유정열
편 집 인 경제통상협력본부
발 행 일 2021년 12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06792)
전 화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I S B N 979-11-402-0107-5 (95320)

Copyright © 202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2
폴란드 진출전략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ISBN : 979-11-402-0107-5 (95320)